

향토 멜로드라마와 여성의 위치성

: 박경리의 『파시(波市)』를 중심으로

김양선 *

차례

1. 서론
2. 향토, 여성의 장소-수옥의 위치성
3. 대도시로 이동하는 여성-학자의 위치성
4. 전쟁 너머의 운명, 이국으로의 이동-명화의 위치성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박경리의 『파시』를 ‘향토 멜로드라마’로 정의하고, 멜로드라마-근대성-젠더 간의 관련성,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공적 사회의 장에 진출한 여성들의 이동성과 위치성이 지닌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전제가 되는 것은 야만, 미개, 토착성과 관련이 있는 향토 멜로드라마의 이야기짜기(plotting), 서사적 의도가 여성(성)의 전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레이 초우의 ‘원시적 존재’, ‘고귀한 야만인’으로서의 여성을 『파시』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인 ‘수옥’에 주목하였다. 이북->부산->통영->개섬->통영에 이르는 수옥의 이동, 주변부-향토-수난 받는 여성이라는 위치성은 전쟁과 자본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근대의 동력에 의문을 표한다.

한편, 학자의 위치성은 통영-향토에서 부산-대도시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학자의 이동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여성성의 사회적 지형이

* 한림대학교 교양기초교육대학 교수

변화한 데 기인한다. 그녀는 죽희나 명화같은 부르주아 여성과는 다른 계층적 위치에서 여성성과 섹슈얼리티를 적극적으로 연행하고,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전쟁과 그 이후를 살아가는 여성의 위치성을 보여준다.

향토 멜로드라마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명화와 응주이다. 통영은 이들의 사랑이 지속되고 끝나는, 향토 멜로드라마가 펼쳐지는 장소이다. 학수와 학자, 수옥의 향토-멜로드라마가 시장과 전시 상태의 엄혹함을 이겨내고 이들이 모종의 성숙을 이루는 데 도달한 반면, 명화와 응주의 향토 멜로드라마는 혈통과 근친상간이라는 운명에 강박된, 현실성이 소거된 순진성, 낭만성을 이상화 한다. 이 성격이 다른 두 향토 멜로드라마는 한국전쟁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속물들의 근대에 항의를 표하는 청춘들의 서사라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 같은 서사로 볼 수 있다.

핵심어 : 향토 멜로드라마, 위치성, 이동성, 여성성, 섹슈얼리티, 야만, 근대성, 한국전쟁

1. 서론

박경리는 1958년 『애가』, 1959년 『표류도』를 발표한 이래 『토지』 이전 25여 편의 장편소설을 발표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김약국의 딸들』(1962), 『파시(波市)』(1964), 『시장과 전장』(1964)은 식민지 시기부터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의 변동을 여성의 시각에서 묘사하면서도 대중성을 획득한 1960년대 문제작으로 꼽힌다. 『파시』는 ‘통영’이라는 특정 공간이 서사를 이끄는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김약국의 딸들』과, 한국전쟁이 여성과 청춘들의 삶에 미친 파괴적 영향력을 심문한다는 점에서 『시장과 전장』과 연결되어 있다.¹⁾ 『파시』는 1964년 7월 31일부터

1) 박경리 소설에서 젠더화된 시각으로 한국전쟁을 형상화한 것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할 것. 김양선, 「한국 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비판의식과 낭만성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페미니즘연구』 8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08.

1965년 5월 31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다. 소설은 오랜 기간 연인이었으나 전쟁 중의 불안감과 실존적 고민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사이가 되어 버린 응주와 명화, 한때 부자였으나 시대변화에 조용하지 못 해 몰락한 집안의 아들딸인 학수와 학자, 전쟁 중에 남하하다가 성폭력을 당하고 통영까지 오게 된 수옥 등, 학력, 계층, 집안배경, 성격이 다른 다채로운 청춘들이 전쟁터도 아니고, 서울도 아닌, 피난지 부산과 통영을 배경으로 전쟁이라는 비상시국을 살아가는 방식을 그리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청춘들의 진폭이 넓은 감정구조, 욕망의 분출과 절제, 우울과 불안,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진 선정주의를 통영, 부산, 개섬으로 이어지는 인물들의 궤적과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감정과 욕망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곳이 시장자본주의와 성폭력, 여자납치, 밀수, 광기어린 여자 등이 공존하는, 즉 근대 체제와 전근대적 속박과 야만이 뒤섞여 있는 향토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필자는 『과시』의 공간적 상상력과 인물들의 감정구조에 주목하여 이 작품을 ‘향토 멜로드라마’라 부를 것이다.

멜로드라마란 통상 감정주의(emotionalism)와 감상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하위 장르를 말한다.²⁾ 멜로드라마의 근본 요소는 ‘과잉’으로 요약될 수 있는, ‘지나친’ 혹은 ‘과장된’ 특성이다. 멜로드라마는 히스테리나 신경쇠약으로 쓰러지기 직전의 인물들, 혹은 극도의 감정적 속박으로 고통 받는 인물들로 가득 차 있고,³⁾ 악인의 증오, 시기, 질투, 앙심, 악의를 표현할 때 감정 과잉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과도한 감정, 도덕적 양극화, 선정주의는 멜로드라마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⁴⁾

197-222쪽.

2) 벤 싱어,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이위정 역, 문학동네, 2009, 63쪽.

3) 익히 알려져 있듯이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은 주로 여성이다. 멜로드라마는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잘못된 사랑과 결혼의 장애, 세대 간 마찰, 인습의 편협함과 가부장 구조에 직면한 여성 자립의 어려움과 존엄성, 자기희생의 애처로운 숭고함을 다룬다(위의 책, 65쪽). 『과시』를 비롯한 박경리의 1950, 60년대 장편소설 속 여성인물들은 대체로 이런 속성에 부합한다.

4) 위의 책, 83쪽.

또한 멜로드라마는 도덕적으로 불명확하고 물질적으로 취약한 탈신성, 탈봉건, 탈주술화된 세계에서 어디 하나 기댈 곳 없이 무력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근대적 삶의 불안정성을 그린다는 점에서 근대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멜로드라마는 도덕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혼란을 경험하는 사회의 불안, 극적인 무력함을 유지하는 근대적 불안에 대한 우화인 것이다.⁵⁾

한편 멜로드라마는 근대성의 젠더를 심문한다. 멜로드라마에 대한 최근 논의는 집 안에 틀어박힌 여성의 감상주의 멜로드라마, 가족 멜로드라마의 영역에 반감을 표하면서, 멜로드라마가 젠더의 관습적 정의에 대한 여성의 좌절, 환멸과 함께 강력한 여성의 이미지를 창조해 낸 점에 주목한다. 이는 여성성의 사회적 지형에서 일어난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가정생활에 대한 거부와 권력 부여의 판타지를 통해 멜로드라마는 여성들이 가정이라는 영역을 벗어나 미증유의 이동가능성을 향유할 수 있게 된 데서 느끼는 흥분을 드러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여성의 이동성은 근대 자본주의에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⁶⁾

위의 정의에 비추어 봤을 때, 박경리의 『토지』 이전 장편소설들, 특히 『파시』는 선과 악의 경계가 확실한 인물들 혹은 극단적인 감정적 속박으로 고통 받는 인물들의 배치와 강렬한 파토스로 직조된 감정 과잉의 멜로드라마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게다가 이데올로기 전쟁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국민들을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으로 혼란과 불안정성의 상태로 몰고 간 근인(根因)으로써 전쟁의 성별과 계층을 심문한다는 점에서 멜로드라마의 근대성의 형식을 띠고 있다. 첫째, 『파시』에는 감정 과잉, 히스테리, 불안, 혹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년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전시기(戰時期)의 혼란과 삶의 불안정성이 젊은 세대까지 잠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이 청년들의 멜로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가 통영-개성, 통영-부산이라는 특정 지역인데, 이 지역은 낭만성과 현실성,

5) 위의 책, 199-206쪽.

6) 위의 책, 384-388쪽.

전근대적 사고방식과 근대적 자본의 논리가 중첩되어 작동하는 곳이다. 안정된 지위와 돈의 논리를 좇는 박의사나 조영래 같은 기성 세대와 물질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무대가 통영이고 부산이다. 셋째,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사적 영역을 벗어나 비상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욕망 충족을 위해 끊임없이 이동을 한다. 필자는 본문에서 장소, 이동성, 주체들의 위치성에 초점을 맞춰 이런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파시』와 관련된 단독 연구는 많지 않다. 조윤아⁷⁾는 『파시』, 『김약국의 딸들』 등 통영을 공간으로 한 소설작품들의 양상을 분석하면서 통영이 비현실적인 몽환적인 공간, 고통스러운 현실적 상황에서 도피하여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자 한편으로는 비윤리적이며, 근친상간과 같은 사회적 금기가 분출되는 곳이라고 본다. 박은정⁸⁾은 전시 부산의 모습에 주목하여, 부산의 양가성이 전시기 경제흐름의 변화, 사회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 가령 부의 재편성, 이질문화의 수용, 밀무역 등을 통해 등장한 신흥부자의 등장, 성의식의 변화, 미국식 문화를 향유하는 아프레 걸의 등장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후방 사회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그 특수성이 특정 계층, 특정 성별과 연동되는 양상을 간과한 점이 아쉽다. 나보령⁹⁾ 역시 『파시』가 피난지 부산의 ‘시장’의 성격에 초점을 맞춰 전쟁을 계기로 새롭게 부상하고 몰락하는 경제 세력을 주밀하게 포착하는 동시에 이십대 청년들의 사랑과 삶의 선택 문제를 그리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부산-시장과 대립되는 통영, 개섬-향토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필자의 입장과 다소 거리가 있다.

이 논문은 멜로드라마-근대성-젠더 간의 관련성에 착안하여 『파시』에

7) 조윤아,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통영 공간의 상상력」, 『비평문학』 32호, 한국비평문학회, 2009, 305-327쪽.

8) 박은정,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전시 후방 사회의 변동-『파시』, 『소시민』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7(2), 한국근대문학회, 2016, 209-240쪽.

9) 나보령, 「시장의 풍경에 주목해 다시 읽는 전후소설 시론-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시장의 의미 연구」, 『현대소설연구』 6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37-66쪽.

서 한국전쟁의 와중에 공적 사회의 장에 진출한 여성들의 이동성, 그리고 유동하는 위치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멜로드라마 앞에 붙는 수식어 ‘향토’는 여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레이 초우는 『원시적 열정』에서 원시적 열정은 과거나 오래된 것에 대한 사랑 때문에 출현한 것도, 단순한 노스탤지어의 감정도 아니다. 원시적 열정은 문화적 위기의 순간에 출현한 동시진행적이고 동시대적인 표상구조라고 말한다. 특히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장소가 중요하며, “여성은 원시적 열정이 카섹시스(cathexis)¹⁰⁾가 되는 장소”라고 보는 점은 이 논문의 발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¹¹⁾ 여성은 원시적 열정이라는 현상 중에서도 전형적인 ‘원시적 존재’이다.¹²⁾ 가령 나이 어린 아내, 미망인, 어머니, 정부, 첩 등이 전통적인(혹은 전근대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희망 없는 상황에 갇힌다. 문화적 억압, 교환, 상품화의 과정을 체현하는 인물도 여성이다. 레이 초우는 지식인(남성)이 상실된 남성성, 민족, 인종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기원을 설정하려는 욕망은 억압받는 여성을 통해서 새로운 종류의 자기 민족지(民族誌)를 쓰려는 시도로 나타난다고 보았다.¹³⁾

‘새로운 토착성’의 구축의 중심에 있는 것이 여성성이다. 여성성은 문화 쓰기의 모순이 가장 명확히 나타나는 장소로서 ‘원시적인 것’의 원형이다. 여성은 가부장제의 야만적인 성질을 참고 견디는 자, 부당하게 대우받고 비방당하고 착취당하는 ‘고귀한 야만인’이다.¹⁴⁾ 즉 향토 멜로드라마의 이야기짜기(plotting), 서사적 의도는 여성(성)의 전유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이다.

10) 정신분석 용어로 일정한 관념이나 인간 또는 경험 등에 자기의 감정이나 정신적 에너지(리비도)를 집중시키는 일, 또는 그 상태를 말한다.

11) 레이 초우, 『원시적 열정』, 정재서 역, 이산, 2004, 73-75쪽.

12) 위의 책, 76쪽.

13) 위의 책, 80-81쪽.

14) 위의 책, 221쪽.

2. 향토, 여성의 장소-수옥의 위치성¹⁵⁾

이 논문은 레이 초우의 ‘원시적 존재’, ‘고귀한 야만인’으로서의 여성을 『파시』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수옥’이라고 설정하고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파시』는 가족을 잃고 남하하던 수옥이 부산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조만갑을 따라서 통영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소설 후반부 ‘귀거래(歸去來)’장은 서영래의 폭력을 피해 ‘개섬’으로 도망쳐 학수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던 수옥이 학수가 질병으로 끌려가게 되자 통영으로 귀환하는 것으로 마감된다. 즉 수옥의 궤적을 따라간다면 부산->통영->개섬->통영이라는 이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상 ‘전시 후방’의 공간이라고 일컬어지는 부산, 통영은 수옥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향토 멜로드라마로서 이 두 공간은 어떤 대척점을 이루는 것일까? 먼저 소설 처음에 재현된 부산(항)의 모습부터 살펴보자.

부산은 “하룻밤에 기천만원이 왔다갔다하니 젊은놈들, 여편네 할 것 없이 환장”이 되어 “돈독이 올라서 모두 얼굴이 누렇게 떠가”는 곳이다. 전시 하 비정상적인 경제구조-『파시』에서는 밀수와 고리대금업-는 자본과 상품에 대한 욕망이 이 공간에 묘한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⁶⁾

15) 페미니스트들은 물리적이고 지리적 장소(location)와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위치성(positionality)에 따라 변화하는 정체성에 주목하면서 정치적 위치성과 경험, 지식 간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려고 했다. 이는 특정한 지식 생산 제도가 어떤 물리적, 상징적 맥락에 놓이는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게 됨을 의미한다. (정민우, 김효실, 『페미니즘 없는 문화연구?-한국 ‘미디어’ 문화연구 메타비평과 페미니스트 지식의 위치성』, 『언론과 사회』 17권 4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07, 156쪽) 이 논문에서는 특정 물리적, 지리적 ‘장소’, 계급, 사회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여성들의 정체성, 그 유동적 특성을 위치성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성 주체는 여러 정체성들이 교차하면서 구성된다. 위치성은 사회/상징적인 위치, 물리적인 위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16) 미국에서 들어오는 군수물자나 구호물자는 부산을 거쳐야만 했다. 미군부대에서 몰래 빠져나오는 물건들이나 밀수를 통해 들어온 물자는 시장으로 보급되어 부산

(가)“그새 부둣가에는 선표를 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중략) 선객들이 배에서 몰려나온다. 쌀장수, 야채장수, 어물장수. 짐을 많이 실어주는 밤배는 또한 장사꾼들의 여관과 같은 곳 (중략) 어슴푸레한 아침이 분주하고 시끄러운 소리 속에 흩어지고 하늘은 푸르게 변져나간다.”(18-19쪽)¹⁷⁾

(나)바다 냄새와 사람의 냄새, 기름냄새와 시공창 냄새, 갖가지 냄새가 찌든 부둣가에는 차츰 사람의 무리가 불어나기 시작한다. 다 자기 나름의 벽찬 삶을 안고 시간의 흐름의 한 토막을 위해 그들은 모두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지게꾼, 부두노동자, 떡장수, 국수장수, 선원들, 가지각색의 용모와 직업과 신분을 지닌 여행자들, 소음과 진구렁창...(553쪽)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부산항의 분주한 모습과 활기를 포착하고 있다. 부산을 묘사할 때는 항구 특유의 냄새와 장사치들, 다양한 직업군이 몰려드는 장소로서, 소음과 생활로 짙 찬 아침 시간대를 배경으로 한다. 통영의 ‘과시’를 묘사할 때 거래가 마감된 후의 저녁 혹은 밤 시간을 배경으로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런데 조만섭씨와 응주가 생각하는 부산은 아래 예문에서 볼 수 있듯 낭만성과 인간다움이 결여된 부정적 공간이다. 반면 통영은 교환논리보다는 인정이 통하는 공간이다. 부산의 부정성과 통영의 긍정성은 이주민 대 토착민, 속물성 대 낭만성과 같은 대립적 속성으로 가시화 된다.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부산 가서 안 살아. 이리 좋은 데가 어디 있을까, 퍼덕퍼덕 뛰는 생선이 사시장철 있지, 인심 좋겠다, 경치 좋고 기후

의 소비문화를 바꿔 놓았으며, 밀수품 거래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신흥 부자가 되는 등 사회의 구조 변동을 가져왔다. (박은정, 앞의 글, 213쪽) 서영래, 그리고 서영래에게 밀수품을 어떻게든 조달받아 중간에 차액을 챙기고자 하는 서울댁, 문성재, 키 작은 사나이 등은 이런 음성적 경제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는 인물들이다.
17) 박경리, 『과시』, 나남, 1993. 앞으로 인용은 이 책의 쪽수를 따른다.

좋고 나도 한때는 상해, 북경을 휩쓸고 댕겨왔지만 내 고향같이 좋은 데는 없더라. 뭉뚱하니해도 아직은 울타리 너머로 음식 갈라먹고 안 사나. 정말 부산은 눈 없으면 코 빼먹을 곳이지. 난리통에 팔도 깍쟁이들이 다 모여서 환장 속이라 거기선 정말 못 살겠더라.” (30-31쪽)

다른 한편으로 통영은 한때 명화의 엄마가 ‘미친’ 채로 거리를 떠돌고, 영래가 서울덕과 작당해서 밀수물건을 대주는 대신에 수옥을 거래하는, 광기와 인신매매가 횡행하는 야만적이고 전근대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레이 초우의 말대로라면 “희망 없는 상황에 갇힌” 여성이 문화적 억압, 교환, 상품화의 과정을 체현하는 장소가 통영, 곧 향토이다.¹⁸⁾

성폭력을 당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부산-대도시의 남성성을 폭력적으로 인식하는 수옥은 부산에서 통영으로 오는 과정에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육체가 전시되는 상황에 처한다. 수옥의 참한 모습은 출발부터 배 안의 남성들의 시선에 포획된다. 특히 서영래는 수옥을 보자마자 욕망을 느끼고, ‘씨받이’로 들일 생각을 한다.

서울덕의 여동생 남편, 즉 조만갑의 매제에게 겁탈을 당한 수옥의 육체는 ‘옆질러진 물, 깨어진 그릇’이라고 표현된다. 정조를 잃은 여성에 대한 남성중심적 표현임은 물론이다. 수옥은 또한 가부장제의 야만적인 성질을 참고 견디는, 부당하게 대우받고 비방당하고 착취당하는 일종의 ‘고귀한 야만인’이다. 이 점은 수옥이 조영래에게 겁탈을 당하는 장면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총구멍이 가슴을 향해 겨누어진 듯” 움직이지 못 하고, “포수한테 쫓기는 사슴새끼처럼” 궁지에 몰린 수옥이 성적 폭력을 당할 때 부르는 이름은 “엄마”이다. 조영래는 “가냘픈 수옥을 어린애 다루듯 번쩍 안는다.”는 구절도 나온다. 이 장면은 영래와 수옥이 유사

18) 수옥처럼 매매와 교환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영-향토에서 여성의 위치는 열악하고 불안하다. 후술할 터이지만 학자는 스캔들 때문에 지역공동체 성원들에게 비난을 받고, 명화는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한 채 아버지의 가련한 딸, 응주의 히스테리컬한 연인으로 존재를 드러낸다.

부녀관계에 가까우면서도, 수옥이 가부장제, 남성의 폭력에 희생당하는 ‘어린아이’에 가까운 약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동성을 체화한 희생자이지만 남성의 폭력에 저항하지 못 하는 것은 전시라는 비상 상황, 통영이라는 주변적 공간이 여성의 저항 내지 현실인식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이후 수옥은 조영래에게 거의 사육되는 수준이 된다. 그는 수옥이 어디로 도망을 칠까봐 돈도 안 주고, 옷도 안 해 입히고, 방치한 채 “꽃부리 같은 걸 저리 버려놓고 새끼만 뽑을라고”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씨받이’로 쓰려고 한다. 조영래는 수옥을 철저하게 교환이 가능한 상품으로 취급한다. 상품에는 영혼이 없어야 하고, 결합이 있어서도 안 된다. 조영래는 수옥의 육체와 영혼을 삭제하고, 육체의 일부인 자궁의 출산능력, 그리고 아래 예문에서 드러나듯 처녀성만을 취하려 한다. 처녀성을 상실한 수옥의 육체는 밀수 물건과의 교환에서 손해를 본 것으로 치부된다.

“나는 니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 이럴 줄 알았음 며할라고 니를 데리고 왔겠노 서울댁인가 먼가 하는 여편네한테 물건 준 것도 니 때문이고 그놈 팔랑개비 같은 그 도적놈, 서울댁이 동생놈한테 물건을 준 것도 다 니때문 이 아니가. 이렇게 되고 보니 내 혼자 함빡 뒤집어쓰고 말았단 말이다. 세상에 혼해빠지고 밭길에 채는 게 계집인데 이럴 줄 알았음 돈 써가며 며할라고 험가시나를 데리고 살 것꼬” (252쪽)

교환과 상품화의 대상이 된 여성이 ‘희망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학수와 함께 ‘통영’을 탈출하면서 가능해진다. ‘매섭’은 돈과 상품을 따라 움직이는 ‘부산’, 낭만 이면에 야만과 폭력, 소문이 여성을 옥죄는 ‘통영’과는 달리 여성이 비체화 되지 않고 자신의 여성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상적 공간이다. 서영래의 영향을 피해 수옥과 학수가 도망 간 ‘개섬’에서 수옥은 성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학수는 영락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자기 손으로 노동하고 수옥을 자기 것으로 했다는 안도감으로 학수는 의젓하고 여유 있고 당당해진다.

요컨대 남성 어른으로서 남성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성적 착취를 당해 왔던 수옥은 임신을 함으로써 여성성을 회복한다. 이처럼 ‘매섬’이라는, ‘통영’에서도 더 떨어진 향토에서 학수와 수옥은 남성성/여성성의 재건을 통해 한국전쟁, 그리고 자본의 흐름으로 야기된 민족, 민중의 훼손을 치유하는 일종의 자기민족지 서술의 주체가 된다.

개섬은 “섬사람 사는 거를 읍내 사람이 보든 짐승 한 가지라”(417쪽)라고 여겨질 정도로 원시적인 공간이지만, 학수에게 ‘시인’의 마음을 회복해 주는 공간이다. 아래 개섬에 대한 서정적 묘사는 향토 로맨티시즘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비눗물같이 희뿌옇게 부서지는 태양, 해초의 싱그러운 내음을 싣고 불어오는 바닷바람, 끝난 곳 없이 아스라이 먼 수평선을 조개 파던 마을 처녀가 허리를 펴며 바라본다.”(431쪽)

집집마다 울 안에 한 그루 두 그루 있는 동백나무, 지금 야무지게 봉오리를 물고 있는 동백의 붉은 빛깔이 아지랑이 속에 흔들리고 있는 지붕이 낮은 초가의 마을, 평화와 봄이 열려서 인심이 후한 마을로 가는 수옥의 눈길은 순하고 어질기만 하다.(432-433쪽)

푸른 바다에는 흰 돛배 푸른 하늘에는 흰 구름, 전쟁도 이념도 금지된 지역도 비극도 없는 평화스러운 고도(孤島)(437쪽)

하지만 ‘개섬’의 낭만성은 역설적으로 전근대성, 미몽(迷夢)과도 통하는 바, 현실 논리에 의해 무너지고 만다. ‘고귀한 야만인’이 근대 체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은 의료 체제의 미비와 획일적인 징병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어느날 제삿밥을 잘못 먹은 학수는 급체를 했어도 고립된 지리적 특성 때문에 별다른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없어 민간처방을 받는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수옥은 처음으로 원시적인 미몽의 섬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게 된다.

“이 섬에 전쟁은 오지 않아.”라는 학수의 확신 내지 소망과는 달리 징

집을 하기 위해 섬에까지 온 사람들은 학수와 섬의 젊은이들을 군대에 끌고 간다. 섬의 원주민들은 국가 권력의 대행자들에 의해 “젊은 놈들이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저 한 몸 살라고 빈둥거리는 꼴이란”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은 당장 씨를 뿌려야 하고, 어장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라 일도 중하지만 후방의 일도 중요하다는 토착민을 대변하는 어장막 책임자의 말은 국가 권력 대행자에게 통하지 않는다. “지금은 전쟁이요, 전쟁이란 말이요, 싸우는 놈 없이 어찌 후방에서 마음 놓고 어장 일을 하며, 농사를 짓는단 말이요?”라는 질문에 이 토착민들은 “도시에 나가든 벵타이하고 사치만 하든서 군대에 안 나가는 젊은 놈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거는 우찌 된 일입니까?”라고 반문한다. 전쟁 수행이라는 의무에도 사실상 지역별, 계층별 위계가 작동함을 비판하는 것이다.

수옥은 학수의 징병을 계기로 개섬에서 통영으로 회귀한다. 이 회귀는 학수의 아이를 임신한 수옥이 학수의 가족과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끝난다. 여성성의 복원을 통해 전쟁으로 훼손된 민족을 구출하고, 아이로 상징되는 미래를 상상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수옥은 전쟁으로 훼손된 남성성-민족 담론의 결락을 보충하는 위치에 있다. 이북->부산->통영->개섬->통영에 이르는 수옥의 이동, 주변부-향토-수난 받는 여성이라는 위치성은 전쟁과 자본이라는 근대를 사실상 움직이는 동력에 의문을 표하는 비판적 의미를 지닌다.

3. 대도시로 이동하는 여성-학자의 위치성

학자의 이동은 수옥과 정반대이다. 수옥이 도시에서 향토로 이동한다면, 학자는 통영-향토에서 부산-대도시로 이동한다. 부산에서도 병원, 약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술집 같은 섹슈얼리티가 교환되는 은밀한 장소로 거듭 이동한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해 촉발된 수옥의 이동이 상황에 따른 비자발적인 것이었다면, 학자의 이동은 다르다. 학자는 박경리 소설

에 흔히 등장하는 탕녀, 아프레걸이다. 학자는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학자와 명화는 통영에서 부산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계층의 차이 때문에 이동의 성격은 달라진다. 명화의 이동이 표면적으로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이면적으로는 ‘어머니의 광기’에 짓눌린 자신의 운명을 벗어나고, 응주와의 지지부진한 관계에서 출구를 찾지 못해서라면 학자의 이동은 일차적으로 집안의 몰락이 촉발한다. 한때 명화와 같이 서울유학을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지방유지의 딸이었던 그녀는 현재의 가난을 혐오하고, 거기서 벗어날 방법을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이용해, 남자의 부나 명예를 발판 삼는 데서 찾는다.

학자는 통영에서 서울대의 남동생이자 한량인 문성재와의 스캔들로 소문의 중심에 선다. 하지만 그녀는 성적으로 문란한 자신을 향한 주변의 시선을 “마지막 같은 절망과 악이 치받친 짐승 같은 표정”(97쪽)의 모습으로 되돌려 준다.

(가)“난 가난한 게 싫었을 뿐이에요. 몇 번이나 빨아서 무늬가 다 지워져 버린 이 원피스 하나만 입고 다닐 수 없었어요. 뒤축이 찌부러진 낡은 구두만 신고 다닐 수 없었어요. 난 젊어요. 이 초라한 꼴을 하고서, 정말 가난하다는 건 비참해요.”(99쪽)

(나)“낡은 구제품 스웨터에 주름치마를 입고 새로 사 신은 듯한 국산 양말에는 뉘에게 밟혔는지 흠이 묻고, 그러나 오만하게 입술을 다물고서.”(188쪽)

(가)와 (나)에서 학자의 가난은 낡아서 무늬가 지워진 원피스, 구제품 스웨터, 흠 묻은 양말, 낡은 구두로 가시화된다. 상품과 소비 능력이 새로운 신분 지표로 막 떠오르기 시작한 때에 그녀의 사회적 위치는 ‘낡은’의 상과 ‘오만한’ 얼굴의 비대칭으로 시각화되어 나타난다. 그녀는 자신의 계층적 하락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약과 위장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죽희와 박의사에게 보여주는 위약,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에

는 나르시시즘과 자학이 뒤섞여 있다. 학자는 전쟁이 낳은 탐욕스러운 괴물이자 섹슈얼리티를 돈과 적극적으로 교환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탕녀이다. 탈향 후 박의사의 병원에서 간호사가 되는 길, 박의사의 아내가 되는 길이 좌절되자 약국에서 잠시 일하지만 곧장 술집 여급으로 남성들을 유혹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택한다.

“다 내가 아니다. 그럼 나라면 어떻게 할까! 약방에 붙어 앉아서 약을 팔아야 했나? 밤낮 앓는 소리 들어가면서 밥이나 짓고 빨래나 했어야 했나? 그리고 부모가 보내주는 대로 시집이나 가고, 그랬어야만 했나? 가난한 건 지긋지긋해. (중략) 난 명화보다 못하지 않았어. 그놈의 뻘뻘질한 뉘 죽희? 그 계집애보다 못하지 않았어. 다만 가난했던 차이뿐이야. 낡은 옷을 걸치고 학교를 중퇴한 그 차이뿐이야.” (473쪽)

예문에서 드러나듯 학자는 자신의 타락의 알리바이를 집안의 몰락으로 인한 가난에서 찾는다.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견디기, 부모가 맺어주는 결혼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 배당된 역할을 거부한 그녀는 당시 남성 질서가 경계했던, 공적인 영역에 뛰어난 ‘위험한 여성’의 길을 선택한다.

부산에 온 학자는 성재가 밀수로 들여온 물건을 빼돌려 생긴 돈을 모조리 써버린다. 학자의 호화스런 하숙방, 가구, 옷가지는 모두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성재의 돈과 교환한 결과이다. 탐욕스러운 소비자인 그녀는 문성재를 파산 지경에 이르게 한다. 성재가 돈 대신 성적 서비스 혹은 사랑의 서비스를 요구하자 학자는 이를 조롱한다. 성재와 자신이 섹슈얼리티와 돈이 오가는 교환관계임을 스스로 폭로한다. 하지만 대도시를 떠도는 위험한 여성을 자처한 그녀의 선택을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만은 없다. 그녀는 폐쇄적이고 봉건적인 통영의 윤리, 허약한 가족공동체로부터 자발적으로 분리되어 나와서 자신의 욕망을 실천하는 근대적 여성성의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을 비난하는 세상과 남성(성)을 조롱하던 그녀는 오빠가 군에 징집당한 후 변화한다. 오빠를 대신해 가족을

돌보고, 오빠의 아이를 불행하게 하지 않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요컨대 학자의 이동을 추동하는 것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여성성의 사회적 지형 상 일어난 변화이다. 한국전쟁은 집 안의 여성을 집 밖으로 이끌어냈다. 남성 가장 혹은 가족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졌던 전쟁미망인, 아프레절은 공적 공간에서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위치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 질서를 뒤흔들지도 모른다는 우려 내지 공포 때문에 경계와 단죄의 대상이 되었다.¹⁹⁾ 학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전시 여성들의 생활은 이런 우려 내지 경계가 잘못 되었음을 폭로한다.

“여기서 일하는 여자들...모두 불행하고 슬프지만, 어떤 면에서 참 순수하고 정이 곧아요.

몇몇 사람들은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을 아껴 가면서도 집에는 꼬박꼬박 돈을 부치고 있어요. 아이가 딸린 미망인들도 있고 피란 와서 가족들 땀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아이, 아직 젊은데 전 이제 중년 아주머니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가 그렇게 되고 보니...그래요. 저도 이젠 여기 있는 불행한 여자들의 한 패거리가 된 것 같아요.“ (545-546쪽)

앞에서 학자가 자신을 초라하고 부끄럽게 여겼다면, 소설 말미에서는 ‘불행한 여자들의 한 패거리’가 된 것 같은 동질감 내지 연대감을 느낀다. 즉 학자는 죽희나 명화같은 부르주아 여성과는 다른 계층적 위치에서 여성성과 섹슈얼리티를 적극적으로 연행함으로써 전쟁, 그리고 그 이후를 살아가는, 혹은 살아가야 하는 여성의 위치성을 보여준다. 이는 학자의 계층적 위치와 이동성이 민족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통치술을 위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의미한다.

19) 김양선, 『지적 해부와 민감성 사이, 전후 현실에 대한 젠더화된 인식-박경리의 전후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7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133-134쪽.

4. 전쟁 너머의 운명, 이국으로의 이동-명화의 위치성

『파시』에서 감정과잉의 드라마라는 멜로드라마의 특성을 뚜렷이 나타내는 인물들이 명화와 응주이다. 응주의 사변적 독백과 우울증, 외골수에 가까운 명화의 고립적 성격과 우울증, 눈물은 ‘혼사장애’라고도 일컬어질 수 있는 이들의 지지부진한 연애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들의 우울증은 전쟁이라는 비상시국을 대하는 독특한 방식이기도 하다. 학수가 수옥과의 진정한 사랑을 통해, 학자가 섹슈얼리티의 탕진을 통해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나름의 정체성을 재구조화 했다면, 기성세대인 조만갑, 조영래, 박의사는 상업, 밀수, 병원 확장, 여성에 대한 성적 욕망의 달성과 같은 젊은 세대와는 다른 속물적 형태로 전쟁 상황을 살아간다. 응주와 명화의 우울증은 학수와 학자와도, 기성세대와도 다르다.

영락한 상업 자본가와 의사를 각각 아버지로 둔 이들은 비교적 전쟁으로 인해 계급적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상식과 윤리가 정지된 전시기의 혼란 상태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이름 모를 불안, 우울증으로 이들을 이끈다.

명화와 응주의 이동은 대체로 밤, 안개 낀 항구와 같은 흐릿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통영으로 귀향한 응주와 명화가 재회하는 곳은 파시가 끝난 밤의 바닷가이며,²⁰⁾ 소설 말미에서 밀항한 명화의 뒤를 쫓아 다시 통영으로 온 응주가 명화의 밀항을 도운 책방 주인과 함께 마지막으로 가는 곳도 항구 옆, 아침 시장이 벌어지는 곳이다. 통영-향토는 이들의 사랑이 지속되고 끝나는 향토 멜로드라마가 펼쳐지는 장소인 것이다. 도시가 아닌 낭만적 분위기의 바다/항구/향토는 전쟁 상태라는 현실로부터 벗어나고픈, 하지만 사실은 가족이든, 전쟁이든 현실로부터 탈주할 수 없

20) “안개가 덮인 바다는 잿빛 포장을 깔아놓은 듯 무겁게 보인다. 그래도 갈매기떼는 눈이 밝은지 모이를 찾아 바다 위에 날아 내리고, 작은 고기를 물고 날아오른다. 배 한 척 없는, 안개에 가려 섬도를 볼 수 없는 우중충한 풍경, 이 세상 끄트머리 같이 우울하다.”(90쪽)

는 이들의 감정 내지 심리상태를 반영한다.

그렇다면 감정 과잉의 멜로드라마는 남성과 여성 젠더 구별이 없는가? 응주는 간헐적으로 명화와 자신의 관계를 분석한다. “갯빛 안개가 서려,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앞날”에 대한 고뇌 속에서 명화에 대한 의무감, 권태와 같은 관계를 청산하고 자유롭고자 하는 자신의 숨겨진 욕망을 응시하거나 세상에 대한 혐오(厭惡)에 빠진다. 하지만 남성 주체인 응주는 ‘내가 선 위치’, 식민적 상황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분석한다.

(가) ‘죽희하고 결혼하고 미국으로 가버린다..’ (중략) ‘너는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나? 분명히 그것을 원하고 있을 거야. 제일 순조롭고 편한 길이거든. 귀찮고 고생스러운 것을 원할 놈이 어디 있어? 알뜰한 영웅심, 나라를 사랑하고, 이게 내 나라가? 우리 손으로 안 되는 시시한 얘기다. 하찮은 연민 따위, 사랑해서 어찌겠다는 거야. 열등감에 사로잡혀 밤낮 짚꺼리는 계집애를 내가 어찌겠다는 거야? 아픔이나 후회 같은 것 그런 것도 차차 없어진다.’ (321-322쪽)

(나) 방파제 저편에는 해가 떨어진 수평선이 있고 여광에 붉은 수평선은 선명하고 신비스러워 응주는 세상 끝에 오직 홀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 슬픔을 느낀다.

‘바다는 다 같은 바다인데 내가 선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는 아우성이 있고 통영에는 흐느낌이 있다. 어느 게 더 슬픈가? 시골 처녀가 남몰래 우는 것과 밤길을 누비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슬취한 창부, 통영의 등대불은 별빛같이 깜박이는데 저 외국 화물선의 불빛은 괴물이 쏘는 눈빛같이 황황하다. 상아같이 미끈한 백인과 흉측스런 검둥이 슬픈 검둥이, 슬픔은 진실인데 진실은 추악한 것이란 말인가.’ (326쪽)

예문 (가)에서 응주는 속물적인, ‘구역질나는’ 현실에 대한 혐오감을 표하면서도 현실에서 도피해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은 자신의 양가적 심리

를 분석한다. 죽희와 결혼해서 병역을 피할 길을 도모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속물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외부에서 강제된 애국심과 국가주의의 공허함도 역시 폭로한다. 예문(나)는 통영과 부산의 바다, 항구의 풍경을 “세상 끝에 오직 홀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 슬픔”과 같은 감상적 표현으로 묘사한다. 그러면서도 ‘외국 화물선의 불빛’을 ‘괴물’로 비유하면서 제국에 점령당한 한국의 현실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응주의 감정 상태는, 비록 그것이 과장된 감상이라 하더라도, 개인사에서 시작해서 전시 상태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명화의 감정 과잉은 어머니의 광기를 자기도 이어 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와 절망감에 기인한다. 명화는 지식인 여성이지만 그녀의 내면을 지배하고 그녀를 움직이는 것은 유전, 운명과 같은 것들이다. 명화는 박경리 초기 소설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욕망이 거세된, 차가운 아름다움을 지닌 지식인 여성의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명화는 ‘지식/지성’보다는 ‘지적인 외양’으로 재현된다.²¹⁾ 소설 처음부터 명화는 “하얗고 반듯한 이마에 푸른 기”(39쪽)를 내뿜는 외모, ‘가냘픈’, ‘수척하고 희미해진’ 육체로 등장한다. 섹슈얼리티가 거세된 듯한 그녀의 육체는 ‘수축’이나 ‘학자’와는 다른 맥락에서 남성의 욕망과 시선에 포착된다.

소설은 한 편으로는 명화를 오이디푸스 삼각관계의 틀에 ‘선정적’으로 개입시킴으로써, 그리고 일본으로의 밀항이라는 이국에 대한 동경을 충족시킴으로써 멜로드라마의 공식을 따른다. 소설 후반부 ‘마지막 주사위’장에서 박의사가 응주와 명화의 결혼을 반대한 이유가 명화의 ‘혈통’ 때

21) 이상진은 박경리 소설의 여성 주인공이 ‘의지적이고 지적인 여성’과 ‘순수하고 낭만적인 여성’으로 두러나며, 이 대조적인 여성들이 작가 자신의 현실과 이상 간의 충돌을 투영한다고 본다(이상진, 『여성의 존엄과 소외, 그리고 사랑-1960년대 박경리 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토지』와 박경리 문학』, 한국문학연구회 엮음, 숲, 1996, 287-296쪽). 명화는 지적인 여성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응주와의 연애 관계를 통해서만 확인하려 하고, 이곳-현실을 부정하고 밀항을 꿈꾸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후자의 유형에 가깝다.

문이 아닌 “내가 좋아했던 여자를 아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명화의 밀항은 밀항을 도와준 책방 주인의 말에 따르면 ‘아름다운 낭만’, ‘외곬으로 흘러가는 그 순수함’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상 명화는 지지부진한 연애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인의 아버지가 자신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왔다는 비밀이 폭로된 후의 충격으로 인해 일본으로의 밀항을 결정한다. 불투명한 미래, 취약한 젠더적 위치가 가져다주는 억압감에서 벗어나고자 탈출을 감행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명화의 이동은 현실 원리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현실 너머에서 그 가능성을 찾는 박경리 소설의 이상적, 낭만적 특성을 응축하고 있다.

멜로드라마의 이면에 감춰진, 텍스트가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면 명화의 밀항을 가부장제와 국가주의로부터의 탈주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통영에서 부산으로의 이동에서 명화는 항상 응주의 사랑, 미친 어머니를 여윈 자신을 가련하게 여기는 아버지와의 친밀성에 의존했다. 가부장 혹은 유사 가부장적 질서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그랬던 그녀가 ‘계획적으로’ 국가와 가부장적 질서 경계 바깥에 있는 일본으로 또 다른 이동을 도모하고 실현했다. 명화는 전근대적 운명론(어머니의 나쁜 혈통)과 근대적 처세술(응주와 죽희의 정략결혼)이 얽혀 있는 혼사장애를 극복하고 집안의 천사가 되는 길, 계속해서 비극적인 운명에 주박당한 딸과 연인이 되는 길, 이 두 길이 아닌 가부장적 질서와 국가를 월경하는 ‘의외의’ 길을 택한 것이다. 비록 비현실적인 낭만성의 그늘을 벗어나지는 못 했지만, 수옥이나 학자와는 또 다른 선택지로 전시기 여성의 위치성을 재구성할 가능성을 보인 셈이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시』는 시장과 돈으로 대표되는 현실 원

리가 지배하는 전시 통영과 부산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여성의 젠더적, 계층적 위치성과 결합하여, 향토 멜로드라마의 공식 속에 녹여낸 작품이다. 최근 『파시』를 비롯해서 1960년대 박경리 소설에 대한 연구는 ‘시장’의 내포적 의미나 ‘통영’, ‘부산’과 같은 특정 공간의 상상력이 지닌 의미를 규명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새 지평을 연 듯하다. 이 논문은 선행 연구와는 달리 전시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집중하지도, 여성의 운명에 대한 탐구에 매몰되지도 않으려 했다. 부르주아 계층이자 지식인인 명화-응주의 관계에 주목하기보다는 계층, 학력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수옥이나 학자의 서사를 좀더 적극적으로 읽으려 했다.

학수와 학자, 수옥의 향토-멜로드라마가 시장과 전시 상태의 엄혹함을 이겨내고 이들이 모종의 성숙을 이루는 데 도달한 반면, 명화와 응주의 향토 멜로드라마는 혈통과 근친상간이라는 운명에 강박된, 현실성이 소거된 순진성, 낭만성을 이상화 한 면이 있다. 하지만 멜로드라마에 잠복한 의미를 적극적으로 읽어낸다면 수옥, 학자뿐만 아니라 명화까지 주어진 여성의 위치성에 머물지 않고 이동과 탈주, 월경을 실천하는 전복적 측면이 있다. 이 성격이 다른 두 향토 멜로드라마는 한국전쟁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속물들의 근대에 항의를 표하는 청년들의 서사라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 같은 서사로 볼 수 있다.²²⁾ 향토 멜로드라마의 속성을 띠면서 전근대적 유체에 침윤되어 있는 『김약국의 딸들』, 한국 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비판 의식을 내장하고 있지만 모성성에 초점을 맞춘 『시장과 전장』, 전쟁미망인의 불안한 위치를 탐구한 『표류도』와 구별되는 자리에 『파시』가 있다. 향토 멜로드라마의 선정주의를 차용하였지만 한국전쟁을 다룬 소설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족의 자기(옹호적) 서술의 관행을 탈피했

22) 이 논문은 여성의 위치성에 초점을 맞춘 탓에 선정주의, 감상성, 감정의 과잉에 수렴되지 않는 응주와 박의사 간의 지적, 추상적 담론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다만, 전쟁이라는 비상시국의 현실에 순응할 것인가, 탈주할 것인가라는 세대에 따라 다른 선택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자간의 대화라는 점은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다는 점에서 『파시』는 박경리의 문학적 궤적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박경리, 『파시』, 나남, 1993.

2. 단행본

레이 초우, 『원시적 열정』, 정재서 역, 이산, 2004.

벤 싱어,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이위정 역, 문학동네, 2009.

3. 논문

김양선, 「한국 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비판의식과 낭만성 -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페미니즘연구』 8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08, 197-222쪽.

_____, 「지적 해부와 민감성 사이, 전후 현실에 대한 젠더화된 인식-박경리의 전후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7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131-149쪽.

나보령, 「시장의 풍경에 주목해 다시 읽는 전후소설 시론-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시장의 의미 연구」, 『현대소설연구』 6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37-66쪽.

박은정,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전시 후방 사회의 변동-『파시』, 『소시민』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7(2), 한국근대문학회, 2016, 209-240쪽.

이상진, 「여성의 존엄과 소외, 그리고 사랑-1960년대 박경리 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토지』와 박경리 문학』, 한국문학연구회 엮음, 솔, 1996, 287-296쪽.

정민우·김효실, 「페미니즘 없는 문화연구?-한국 '미디어' 문화연구 메타비평과 페미니스트 지식의 위치성」, 『언론과 사회』 17권 4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07, 154-196쪽.

조윤아,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통영 공간의 상상력」, 『비평문학』 32호, 한국비평문학회, 2009, 305-327쪽.

Abstract

Local melodrama and women's positionality

: Focused on Park, Kyung-ri's *Pashi*(*Seasonal Fish Market*)

Kim, Yang-sun

This paper defines Park, Kyung-ri's "Pasi" as a "local melodrama", and examines the connection between melodrama, modernity and gender, specially the meaning of mobility and locality of women who entered the field of public society due to Korean War. The premise is that plotting and the narrative intention of local melodrama which is related to the barbarianism, nativism are closely related to the appropriation of femininity.

This paper focuses on a symbolic representation of women, 'su-ok' as the 'primitive existence', 'noble savage' of Ray Chow. Su-ok's mobility from the north->Busan->Tongyeong->Gaesum->Tongyeong and her positionality as the periphery-local area-suffering woman questions the war violence, capital, and modernity.

On the other hand, the positionality of 'Hak-ja' is related to moving from local Tongyeong to metropolitan city Busan. The mobility of Hak-ja caused by the changes in the social position of femininity during Korean War. She performs the femininity and sexuality positively in a different hierarchical position from bourgeois women such as 'Jook-hee', 'Myeong Hwa', and shows the positionality of women who live in the war and after the war.

'Myeong-hwa' and 'Eung-ju' are the characters that s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melodrama. Tongyoung is a place where the local melodrama is held and their love lasts and ends. While the local melodrama of 'Hak-ja', 'Hak-su' and 'Su-ok' overcome the vigor of the market and war, and they reach the stage of maturity, the melodrama of 'Myeong-hwa' and 'Eung-ju' is obsessed with the fate of bloodline and incest, and idealizes the innocence and romanticism. Even though these two local melodramas have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it can be seen as the similar narratives which protest the ideology of Korean War and the modernity of the snobs.

Key words : local melodrama, positionality, mobility, femininity, sexuality, barbarism, modernity, Korean war

■ 본 논문은 2017년 7월 13일에 접수되어 2017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